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과제명

- 2023 팬데믹 조약의 주요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출장기간

- 2024.03.17.(일) ~ 2024.03.30.(토)

출장국가(도시)

- 스위스 제네바

출장자

- 김수경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03.17.	인천/제네바	-	-	인천 출발/제네바 도착
03.18.-03.28	제네바	WHO 본부	-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03.29.-03.30	제네바/인천	-	-	제네바 출발/인천 도착

2

출장 주요내용

※ 대표단에게만 오픈된 세션(Closed session)은 간략하게만 정리, 온라인으로 오픈된 세션(Open session)은 상세 내용 정리함

①	인천 출발/제네바 도착
일 시	2024.03.17.(일)
장 소	인천국제공항/제네바국제공항
참석자	-
인천국제공항 출발, 제네바 도착 및 숙소 이동	
②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3.18.(월)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장은섭 과장, 김정열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 개회, Plenary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총장) INB를 위해 노력한 사무국 및 회원국들에 감사함. 우리 모두가 팬데믹 예방, 준비, 대응(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PR)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이익공유를 위한 형평성있는 시스템에 동의하였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이 있음. 팬데믹으로 인해 7백만의 목숨을 잃었으며 이로인해 얻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됨. - (동남아 대표발언) 팬데믹 조약은 형평성, 투명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되었음. 모든 회원국들은 현재 본문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함. 견고한 재정 메커니즘 마련 및 실행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개도국의 고민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 조약은 실행이 잘 되지 않을 것임. - (아프리카그룹) INB9 논의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에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고 있음. 연대성, 포합성, 투명성에 기반하여 INB9가 진행되어야 함. 이 조약을 통해 생산역량의 지리적 분배, 생산역량의 강화,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과 같은 키포인트들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음. 모든 INB의 마무리는 형평성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형평성그룹 대표발언) 형평성이 조약의 핵심이며 국제적 연대 및 연합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함. 병행세션은 소규모 국가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대함. 현재 4조와 5조의 내용이 형평적 관점을 잘 포함하고 있지 않음. ‘보건 시스템 역량강화에 대한 집중’은 유지되어야 함. 지속가능한 재정은 팬데믹 PPR에 핵심 요소임.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현재 제안된 본문이 서브그룹에서 진전된 논의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 현재 본문이 논쟁이 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국가간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영국) 수정된 문안은 이전에 비해 후퇴했음. 서브그룹에서의 논의가 사라졌음. 기술이전 및 PABS 조항에 동의했던 내용에서 멀어졌음. 조항의 목적 역시 약화되었음. 서브그룹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 유가 명확하지 않음.
- (미국) 문안이 이전에 비해서 후퇴했음. CBD, 지적재산권, 펀딩 관련 내용 등 논란여지가 있는 내용을 다시 넣어두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음. 이전에서 우리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레드라인임을 계속 언급해왔음. 우리는 많은 지점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왔음. 각국의 모두가 각자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음.
- (시리아) 북한, 중국을 포함하여 대표발언함. 수정된 본문은 코로나가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두 그룹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첫번째 그룹은 약한 보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낮은 연구역량과 생산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 이러한 나라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을 가져야 했음. 두 번째 그룹은 일방적 강압 조치(Unilateral Coersive Measures, UCM)를 받고 있는 국가임. 이들은 MCM 구매 및 조달에 있어서 파괴적 영향을 받고 있음.
- (한국) 첫째, 한국은 차기 팬데믹에 대비하여 WHO 회원국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화한(모든 회원국이 따라야할) 의무 도출이 팬데믹 조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회원국들의 모든 노력은 이를 마무리 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함. MCM의 공평한 분배도 중요한 이슈로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함.

○ Preamble (서두)

- ✓ 중국 및 개도국 그룹은 “글로벌 연대”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복 제안, 선진국 그룹은 간소화 측면에서 5항에서 한 번만 언급하면 된다고 했음(미국은 글로벌 연대;solidarity보다는 글로벌 unity로의 단어 수정을 제안함)
- ✓ 인도는 대부분 항에 있어 팬데믹 PPR(예방, 준비, 대응)에 더해 ‘복구(Recovery)’ 포함의 중요성을 지속 언급함(선진국 그룹은 이에 반대)
- ✓ 이란, 시리아, 중국 등 UCM을 경험하는 국가는 팬데믹 관련 제품에대한 “장애요인이 된(hindered)” 접근 언급을 지속 주장함
- ✓ EU는 ‘개도국’ 언급보다는 ‘최빈개도국(LDC)’ 언급이 보다 적절한 언급임을 전반적으로 언급함. 이에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수 남미 개도국은, 이같은 언급은 개도국에 등급을 매겨 개도국을 분열시키는 일이라며 강경 반대함.

○ 2조 목적

- ✓ 일부 개도국과 일부 선진국은 모두 본 조약이 항시 적용(팬데믹 기간+팬데믹 간 기간)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함(이전 버전의 문안에는 있었으나 삭제됨).
- ✓ 피지를 필두로한 일부 개도국 그룹과 노르웨이, 싱가포르는 강화된 팬데믹 PPR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예방하는 것 ‘이야말로 본 조약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이같은 내용 추가를 주장함.

③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3.19.(화)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장은섭 과장, 김정열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p>○ 3조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R의 개념이 3조에 다시 등장하여 선진국(미국, 노르웨이, 모나코, EU, 뉴질랜드, 영국, 이스라엘, 일본, 호주)은 CBDR에 대한 내용 포함을 강경 반대하였고, 개도국(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이집트, 아프리카그룹, 볼리비아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함. ✓ 캐나다, 모나코, EU 등 선진국은 인권에 있어서 상세내용이 추가되길 원했으며, 각국 내 형평성 차원에서 성별 등 다양한 요인 추가를 원함. 반면 중국 및 이집트 등은 현 간소화된 내용이 바람직하며 내용을 늘리지 말 것을 요청함. ✓ 미국, 뉴질랜드는 국가간 그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연대(solidarity)’의 사용을 원치 않았으며, 볼리비아, 중국, 시리아, 나이지리아, 도미니카, 브라질, 아프리카 그룹 등에서는 연대는 모순적인 단어가 아니므로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함. <p>○ 4조 팬데믹 예방 및 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4조 전반에 걸쳐 당사국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야생동물 및 가축 감시, AMR 관련 상세 내용 포함)를 적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 기술된 내용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함. 반면 개도국은 의장단이 현재 제시한 문안 정도가 간소화 차원에서 적합하여, EU의 제안이 그다지 건설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반발함. ✓ 개도국은 각국의 이행역량 수준을 감안하여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 추가를 주장함. 일부 개도국은 기술 이전의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야 개도국이 4조 조치를 잘 이행할 수 있다고 말함. <p>○ 5조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원 헬스 접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원헬스 관련 조치의 의무 수준 상향 및 관련 활동 구체적 적시를 주장함. ✓ 선진국을 위주로 4자협의체 및 그 기관을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반면 개도국 그룹은 원헬스 접근법을 다루는 기관은 4자 협의체 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함. ✓ 일부 개도국은 현재 5항 내 일부 항이 4조에도 있다며, 일부 항 삭제를 주장 	
④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3.20.(수)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장은섭 과장, 김정열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p>○ 6조 대비상태, 보건체계의 회복탄력성 및 복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들은 4항의 국제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에 관련된 내용의 삭제를 주장함. ✓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란 등에서는 인도주의적 상황 관련 내용의 추가를 원함. ✓ 브루나이를 포함하여 데이터 표준과 상호운용성에 대한 기존 6조의 내용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p>○ 7조 보건의료 및 관리 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간 크게 충돌하는 의견은 없었음. ✓ 일부 개도국은 shall, commit 같은 의무적인 용어보다 순화된 용어의 사용을 원함. 	

✓ 인력 대상 괴롭힘/폭력 관련 내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언급한 일부 선진국(노르웨이, 영국)이 있었음.

○ 8조 대비상태 모니터링 및 기능검토

✓ 개도국그룹과 일부 선진국그룹에서 현재 8조 위치가 다소 어색하다며 3장으로 또는 2장의 후반부로 8조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한국, 중국, 일본, 사우디, 러시아 등은 “5년주기로” 팬데믹 대응 능력의 격차를 평가한다는 2항에 대해 구체적인 주기 언급하지 않을 것을 주장함. 반면 EU, 호주, 노르웨이 등은 “최소 5년에 한번은” 이라고 하며 주기 축소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임.

○ 9조 연구 및 개발

✓ 선진국은 R&D 성과 공유 및 기술 이전 등에 있어서 “상호 합의된”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였으며, 개도국은 대체로 현재 문안에 만족하였음.

✓ 많은 개도국은 연구 성과를 더 많이 빠르게, 제한없이 공개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원했음. 일부 개도국은 현재의 9조 문안을 지지하였으며, 6항(관련 국가정책 개발, 가격정책 등 공표)의 중요성을 강조 및 더 이상 의무 수준이 약화되지 않아야 할 것을 요청함.

⑤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3.21.(목)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장은섭 과장, 김정열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 10조 지속가능하며 지리적으로 다양성을 갖춘 생산	
✓ 선진국 위주로 ‘자발적이며 상호합의된 조건으로(VMAT)’ 조건 추가 필요성이 강조됨. 또한 ‘국내 법에 따라’, ‘적절하게’ 문구 추가 또는 shall 을 ‘is intended to’ 로 수정 등 의무수준 하향을 원하는 의견이 제시됨.	
✓ 일부 선진국은 팬데믹 관련 ‘보건’ 제품으로만 범위 한정할 것을 주장함. 반면 개도국은 팬데믹을 일으키는 질병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품 달라지므로, 전반적인 제품 (“팬데믹 관련 제품”) 생산을 중재해야 제대로 팬데믹 PPR할 수 있다고 반박함.	
✓ UCM 경험 국가들은 ‘unhindered(방해받지 않는)’ 제품 접근 보장 중요성을 언급함	
○ 11조(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 선진국은 강제에 의해서는 기술이전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VMAT 조건 추가를 강력히 주장함. 어떻게 해야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음. 반면 개도국은 VMAT 추가는 현상유지(status quo)에 불과하다며 강제성 있는 조치는 필수적이라며 강력히 주장함. 이들은 또한 규제서류도 공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⑥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3.22.(금)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장은섭 과장, 김정열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 12조 PA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개도국은 GSD(유전체 염기서열데이터)가 아닌 DSI(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용어가 더 광범위한 개념이며 이미 BBNJ, CBD 등 타 협약에서 사용된 용어라며 DSI 사용을 강력히 주장함. 반면 선진국 그룹은 타 협약에서 사용된 용어이더라도 본 조약은 ‘공중보건적 관점에서’ 쓰여져야 하므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실질적 팬데믹 PPR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예: GSD 공유만 되어도 팬데믹 PPR을 위한 MCM 개발에 충분. DSI는 지나치게 광범위함) ✓ 이 외에도 10%+10%의 물품 기부 이슈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해당 수치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합리하며, 각 팬데믹 상황마다 비율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함. 반면 개도국 그룹은 30%+10% 등 더 높은 비율의 물품 기부가 필요하다며 반박함. ✓ 이 외에도 WHO CLNs 외부에서도 병원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슈, “법적 구속력 있는” 위임사항에 대한 이슈, WHO PABS가 나고야 의정서 및 CBD의 SII(국제화된 전문체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이슈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간 강한 의견차가 드러남 	
⑦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3.23.(토)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장은섭 과장, 김정열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 11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선진국은 본 협약에서 WTO TRIPS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TRIPS 언급 항 전체를 삭제 주장함. 개도국 그룹은 필요할 경우 TRIPS에 따라 정보 공유 강제 조항 포함을 주장하였고, TRIPS 등 타 조약 조항들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함. 	
⑧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2주차 회의 대응을 위한 대표단 내부 논의
일 시	2024.03.24.(일)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2주차 회의에서 논의할 조항 (13조~) 및 Way forward 관련 발언문 작성 방향 논의	
⑨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3.25.(월)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 제13조 공급망 및 물류

- ✓ UCM 경험국은 UCM이 제품의 분배, 조달에 영향 미쳐서는 안된다는 조항 추가를 원함.
- ✓ 선진국 그룹은 네트워크의 '조정' 기능을 강조함.
- ✓ 13조의 2에서 선진국 그룹은 각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 조달 계약에서 불합리한 기밀 유지 조항을 배제, 정부 자금 지원 구매 계약의 관련 조건을 게시 등 활동을 해야 함을 주장함

○ 14조(규제체계 강화)

- ✓ 일부 선진국은 다수 조항에서 "국내법에 따라" 문구 추가를 희망함.

○ 15조(책임 및 보상 관리)

- ✓ 미국은 본 조 고려해준 의장단 및 회원국에 감사하며, 각 당사국이 백신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이같은 의무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함을 주장함.
- ✓ EU는 인도주의적 상황, 취약한 상황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 추가를 희망했음.

○ 16조(국제협동 및 협업)

- ✓ 선진국을 위주로 의사결정 과정에 공평한 대표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여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성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17조(정부전체 및 사회전체 접근법)

- ✓ 제재를 경험하는 국가는 '항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자원의 적시 할당 촉진' 등의 표현 추가를 원함.

○ 18조(커뮤니케이션 및 대중의식)

- ✓ 개도국은 커뮤니케이션 관련(잘못된 정보, 오보 관리) 기술/자금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함.
- ✓ 선진국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과학/근거 기반 접근법',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기반' 등의 용어 추가를 주장함.

○ 19조 이행 역량 지원

- ✓ 개도국은 재정/기술지원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개도국의 이행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조항 추가를 주장함.
- ✓ 선진국의 경우, LDC 당사국의 요구에 특별히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각국 상황(자원 상황, 정책, 법,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 20조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 ✓ 선진국을 위주로 팬데믹 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삭제하길 희망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또한 선진국은 부채탕감 등 채무 구제를 위한 조치는 팬데믹 조약 내에서 언급될 사항이 아니라며 삭제를 주장함. 이들은 또한 팬데믹 발생일(day zero)에 공용 펀드 새로 설립하는 것에도 반대함.
- ✓ 개도국은 "국가의 연간(즉, 의무) 기금"을 강조하거나, 추가적인 재원 동원이 필요함을 주장함.

⑩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3.26.(화)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p>○ 3장(21조~3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을 필두로한 일부 선진국 그룹은, COP의 모든 결정이 ‘합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구 추가를 원함. 우리나라도 이에 동조함. ✓ 미국은 COP가 WHA의 제3차 본위원회와 공동 세션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길 원했으나, 아프리카그룹 등의 개도국은 보건부 인력과 자원 부족하다며 강력 반발함. ✓ 31조 규약(프로토콜) 관련하여 중국을 필두로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등은 ‘팬데믹 조약의 당사국만 규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음’으로 수정을 원했음. 또한 이들 국가는 33조 서명에 있어서도, ”이 협정은 모든 국가와 지역 경제 통합 기구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를 ”이 협정은 WHO의 모든 회원국 및 WHO 회원국은 아니지만 UN의 회원국 또는 비회원 참관인 국가인 모든 국가와 지역 경제 통합 기구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로 수정 주장함. 미국 등의 국가는 이 주장에 모두 반대하며 의장단 원문 유지를 주장함. 	
⑪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3.27.(수)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p>○ Way forwa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그룹, 형평성 그룹은 각국 레드라인을 인지하고 있지만, 팬데믹 PPR에 있어 형평성실현이 핵심임을 주장함. ✓ 선진국 그룹은 이번 INB회의에서 제네바 정신이 발견되기 어려웠음을 이야기하며, 차후 속개회의에서 모두가 용인할 수 있을만한(consensus를 기반으로 한, 각 국 레드라인을 반영한) 현실적인 문안이 나와야 함을 언급하였음. 그럼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협상에 실패할 수도 있기에 현실적으로 Plan B를 미리 생각해두어야만 함을 언급함. 이 맥락으로 속개회의의 1주차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2주차부터는 향후 계획을 논의해야 함을 주장함. 	

⑫	WHO 제 9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9)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3.28.(목)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29일~5월10일 2주간 9차 속개회의(Resumed session)을 추가로 개최하며, 4월 중순에 streamlined text가 공유되기로 결정됨. ✓ 9차 속개회의 첫 1주간 협상을 진행하고(on-screen drafting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함), 2주차부터는 제77차 보건총회 보고를 위한 작업과 way forward를 논의하기로 결정됨. ✓ 회기간 비공식 논의를 위한 각종 스케줄과 장소를 배분, 안내하기로 함. 	
⑬	제네바 출발/인천 도착
일 시	2024.03.29.(금) - 2024.03.30.(토)
장 소	제네바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참석자	-
제네바국제공항 출발, 인천 도착 및 귀국	

3

출장 증빙 (세미나 및 회의현장 사진, 명함 등)

장소	WHO 본부 회의장 사진
	